

- **주요 뉴스:** 영란은행, 긴급 채권매입프로그램 시행.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 하락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경기침체 회피와 수요 둔화의 동시 달성은 어려운 과제
 - ECB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도 금리인상 지속할 방침
 - 중국 인민은행, 외환시장 안정이 최우선 임무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2.0%], 달러화 약세[-1.2%], 금리 하락[-2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 금리 하락 및 대형기술주 강세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지수는 의료보건주 강세 등으로 0.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5%,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영란은행의 긴급 시장안정 대책 등이 영향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1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422.7원, -17.2원) 1.1% 하락, 한국 CDS 상승

		9/28일	9/27일	전일대비			9/28일	9/2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719.0	3,647.3	1.97%	국채 금리 10y	미국	3.73%	3.95%	-21bp
	유럽	389.41	388.24	0.30%		독일	2.12%	2.23%	-11bp
	중국	3,045.1	3,093.9	-1.58%		영국	4.01%	4.51%	-49bp
	일본	26,174	26,572	-1.50%	CDS 5y	한국	55bp	52bp	3bp
	한국	2,169.3	2,223.9	-2.45%		중국	106bp	104bp	2bp
환율	달러지수	112.70	114.11	-1.23%	위험 지표	EMBI+	-	461	-8bp
	유로화	0.9735	0.9594	1.47%		VIX	30.18	32.60	-7.42%
	엔화	144.16	144.80	0.44%		WTI유	82.15	78.50	4.65%
	위안화	7.2005	7.1761	-0.34%	원자재	구리	338.2	332.3	1.78%
	원화	1,439.9	1,421.5	-1.28%		금	1,660.0	1,628.9	1.9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영란은행, 긴급 채권매입프로그램 시행.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 하락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당분간 국채 매각을 유예하고, 9/28~10/14일까지 매일 50억파운드(총 650억파운드) 규모로 잔존 만기가 20년 이상인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필요 시 무제한의 추가 매입이 가능. 만일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중단할 방침
- 한편 다음 번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거시경제 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 특히 인플레이션의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
- 이번 발표 이후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 등으로 미국(3.73% -21bp), 독일(2.12% -11bp) 등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 영국의 경우도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내렸고(4.01% -49bp), 주가는 소폭 상승(FTSE100 7,005.4 +0.30%). 파운드화는 달러화 대비 1.45% 절상(1.0733→1.0889)
- 이번 조치는 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만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영란은행은 특별 자산매입 기간을 좀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 현 상황에서 영란은행이 추진하는 최우선 정책과제는 국채시장의 정상화라는 평가가 가능(ING의 Antoine Bouvet)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경기침체 회피와 수요 둔화의 동시 달성은 어려운 과제

- 데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또 다른 책무인 최대고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 인플레이션 압력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경기하강은 최대한 완만한 형태가 되기를 원한다고 부연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긴축적인 금리수준이 유지되어야 하며, 연말 연방기금금리가 4.25~4.50%에 이를 것으로 예상. 당분간 수요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을 역시 장기 평균을 하회할 수 있다고 첨언
-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 내년 3월 연방기금금리가 4.50~4.75%까지 올라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 ECB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도 금리인상 지속할 방침

- 라가르드 총재는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수차례의 금리인상이 요구된다고 발언. 물가안정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큰 충격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
- 핀란드 중앙은행 렌 총재는 연내 중립금리 도달을 위해 ECB가 10월에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카지미르 총재도 ECB가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75%p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

■ 독일 10월 GfK 소비자신뢰,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

- 10월 GfK 소비자신뢰지수는 -42.5를 기록하여 전월(-36.8) 및 예상치(-39.0) 하회. 다수의 가계들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 관련 비용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다른 부분에 대한 소비 여력이 제한적(GfK의 Rolf Buerkl)

■ 중국 인민은행, 외환시장 안정이 최우선 임무

- 외환시장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며, 위안화는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 또한 환율의 방향은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강조하여, 한 방향에 집중하는 투기적 거래에 경고 신호를 발신
- 한편 2000억위안 규모의 기업 시설 확대를 위한 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제공하면, 해당 기관들은 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에 나설 전망

■ 일본은행, 완화기조 유지. 급격한 엔화 약세를 주시할 필요

-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최근의 엔화 약세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내면서도 현행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일부 위원은 세계경제가 충격에 직면하면 엔화가 강세 전환할 수 있다고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2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상품 무역수지(억달러): -873, 7월(-911), 예상치(-)
- 미국 8월 잠정주택판매(전월비): -2.0%, 7월(-0.6%), 예상치(-1.4%)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중앙은행의 1970년대식 대응, 과잉 긴축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Central Banks have prepared a recipe for monetary overkill and liquidity crises)
 -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볼커 전 연준 의장이 긴축정책을 펼친 1970년대와 유사. 다만, 장기간의 초저금리 및 팬데믹을 거치며 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이 당시와 큰 차이
 - 금융시장의 주된 역할은 여수신 업무가 아닌 글로벌 성장을 위해 부채를 차환(refinance)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 금융시스템은 안전성이 낮은 담보에 점점 더 의존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나, 중앙은행들은 지표에 근거한 의사결정(data dependent)을 내세우면서 인플레이션 및 고용 등 후행 지표들을 참고. 이는 결과적으로 과잉 대응으로 귀결될 우려
- **연준의 금리인상, 경기침체를 불러올 정도로 과도한 편 - 블룸버그**
(The Unease You Feel Is the Fed Pushing Into a Recession)
 - 최근 시장에서는 연준이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일각에서는 여타의 많은 중앙은행들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
 - 이에 뉴욕 연은 더들리 전 총재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 원자재 가격 및 임대료 하락 등 인플레이션 둔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연준은 강력한 통화긴축 지속을 재고할 필요(Evercore의 Ed Hyman)
- **회사채시장의 신용 위험, 주식시장 불안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블룸버그**
(Stock Bear Market Will Get Whole Lot Worse When Credit Cracks)
 -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반영된 기업실적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 하지만 이익마진 축소, 강달러, 자본조달 여건 악화 등은 자산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
 - 특히 미국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조정 폭이 크지 않았던 점에 주목. 앞으로 신용 스프레드 확대, 신용등급 강등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시장 불안 심화는 채권보다 주식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 **미국 노동시장, 겉보기만큼 수급이 팽팽하지(tight) 않은 상태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Cracks in the US labour market are starting to appear)

- 신규 고용자수, 임금상승률 등 노동시장의 헤드라인 지표들은 공격적 금리인상의 근거로 지목되나, 세부 통계들은 고용 둔화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지지. 첫째, 부업을 겸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자수가 과다 계상되고 있고, 이는 full time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part time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통계로 뒷받침
- 둘째, 구인-이직 통계에서 보이는 높은 구인비율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실제보다 과장. 셋째, 실질 임금상승률은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 넷째,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세를 보이는 중

■ **아시아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 예상 - 블룸버그**
(Plunging Markets Spur New Intervention Warnings Across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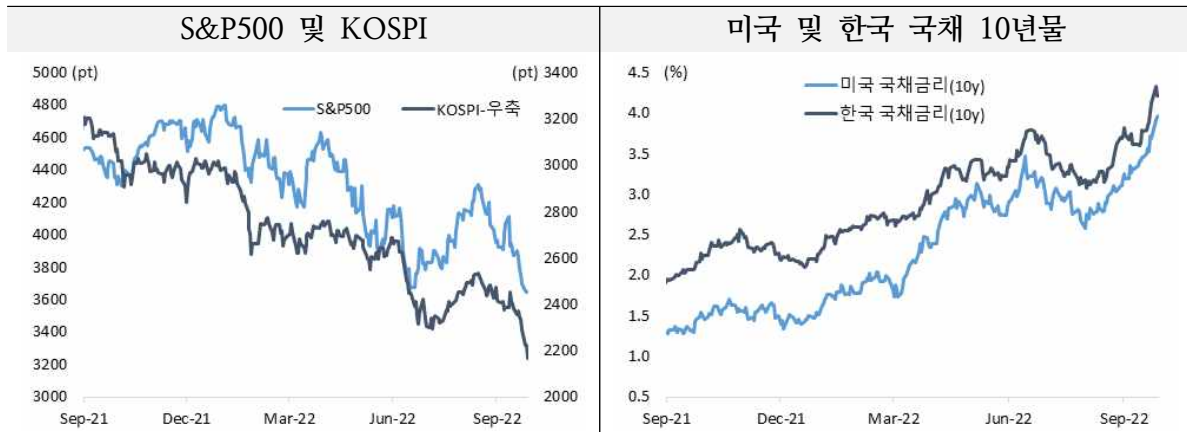
- 아시아 주요국은 달러화 강세 및 자본이탈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개입을 확대. 그러나 가용한 조치는 제한적이며 강달러 지속 및 상대적으로 낮은 실질금리 등으로 시장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특히 중국의 경우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08년 이후 최저 수준에 있으나 인민은행은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 또한 유동성 축소 우려 등으로 과감하게 위안화 매입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
- 다만 통화당국의 미온적 대처는 금융시장 변동성 대처능력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공격적인 개입 또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균형적 대응이 요구. 한편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어, 당국에서는 자본유입 촉진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영국의 브렉시트 이념 경도,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 - Financial Times**
(Brexit ideology lies behind the UK's market rout)

■ **글로벌 석유 수요, 경기침체 가능성 고려 시 정점 통과한 것으로 추정 - 블룸버그**
(Peak Oil Has Finally Arrived. No, Really)

■ **은행주 주가와 금리의 상관관계 변화, 조달금리 상승과 대출손실 우려에 기인 - WSJ**
(Bank Stocks Are No Haven From Rising Rate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